

四年間軍政延長可否 國民投票를實施

朴議長重大聲明

모든政治活動일단中止

完全한民政위한바람 마련하기위해

地域·職能代表로 最高議構成 政界重鎮들로 諮問機關을設置

大統領權限代行朴正熙議長은 16日下午4時5分에 軍政을 앞으로 四年間 더延長할것인가의 與否를 國民投票에 회부하여 직접 國民의意思를 물었다고 宣言하였다.

朴議長은 國民投票는 可能한限 短時日內에 實施하겠다고 言明하였다. 朴議長은 이宜 言과함께 國民投票까지 모든政治活動을 中斷한다고 言明하였다.

朴議長은 이國民投票에서 國民의信任을 얻지못한다면 即時政治活動을 再開하고 革命政府는 一切民政에 참여하지않고 三·一八(綠野) 三·二七(宣誓)대로 政權을 政治人에게 넘기겠다고 言明했다.

革命政府, 一切民政에 不參 2·27宣誓대로 政治人에 맡겨

我黨은 國民의 革命理想을 實現하기위해 革命政府를 樹立한바 革命政府는 一切民政을 政治人에게 맡기기로 決定하였다. 革命政府는 一切民政을 政治人에게 맡기기로 決定하였다. 革命政府는 一切民政을 政治人에게 맡기기로 決定하였다.

最高議 改憲案을 發議

內容은 四年間軍政延長可否

政治活動과 示威를 停止 政治的言論出版도 規制

非常事態收拾위한 臨措法도 通過

16日下午 最高議 改憲案을 發議

反國家的의 陰謀等은 民 心의 極甚한 不安과 混亂을 招起하고 있다. 革命政府는 一切民政을 政治人에게 맡기기로 決定하였다. 革命政府는 一切民政을 政治人에게 맡기기로 決定하였다.